

KDMT1200847586

45
2
1

경주국립공원의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林 元 炫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6月

慶州大學校 産業經營大學院

觀 光 造 景 學 科

李 相 英

李 相 英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崔宰榮 

審査委員 黃正煥 

審査委員 林元炫 

慶州大學校 産業經營大學院

2008年 6月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
II. 국립공원별 공원자원 현황분석	6
1. 경주국립공원	6
2. <u>덕유산국립공원</u>	10
3. <u>오대산국립공원</u>	13
III. 경주국립공원의 현안과 과제	17
1. 경주국립공원의 지구별 현안과 과제	17
1) 현안	17
2) 과제	26
2. <u>경계불부합지역</u> 조정 문제와 과제	28
1) 국립공원 경계불부합 현황	28
2) <u>문화재보호구역</u> 과의 중복지정문제	32
IV. <u>공원시설 관리체계</u> 개선방안	34
1. 공원시설 인계·인수 기준	34
2. 공원시설별 검토	34

Ⅳ. 결론	40
-------------	----

참고문헌	42
------------	----

ABSTRACT	44
----------------	----

표차례

<표 1> 경주국립공원 평가기준	5
<표 2> 문화자원 현황	13
<표 3> 경주국립공원 평가결과	19
<표 4> 덕유산국립공원 평가결과	22
<표 5> 오대산국립공원 평가결과	25
<표 6> 국립공원 평가결과 종합	27
<표 7> 경주시_환경부경계의 내외부 불부합 현황	29
<표 8> 수지도 축척별 오차범위	32
<표 9> 문화재보호구역 현황	33
<표 10> 공원시설물 관리·소유권 세부내용	37

그림차례

<그림 1> 경주국립공원과 타국립공원 평가결과 비교	17
<그림 2> 경주국립공원 분야별 평가	18
<그림 3> 덕유산국립공원 평가결과	21
<그림 4> 오대산국립공원 평가결과	23
<그림 5> 경주국립공원 경계불부합 총괄도	28
<그림 6> 수치지적도와 수치지형도의 차이	30
<그림 7> 경주국립공원지구의 경계불부합	31
<그림 8> 문화재보호구역 현황도	32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초로 지정되어 현재는 20개의 국립공원에 이르고 있다. 경주 국립공원은 자연풍치가 아름답고 신라천년의 고도로서 유적이 잔존한 국내 유일의 사적지이므로 이를 보호함과 동시에 여가 공간의 확보로 국민의 문화, 정서생활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8년 지정되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다섯 개의 지구를 신설하여 토함산, 남산, 대본, 서악, 화랑, 소금강, 단석산, 구미산의 총 여덟 개 지구로 국립공원이 결정되었으며 '70년 공원계획 결정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공원계획 변경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립공원의 관리는 지역적 특성이 뚜렷한 경주국립공원을 비롯하여, 한라산국립공원과 한려해상의 오동도지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경주국립공원은 2008년 환경부로 관리이관 되었다. 나머지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되고 있다.

공원계획은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을 보호·관리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기타 행위의 제한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으로 자연공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언급은 국립공원 내에서 대두되는 보존과 이용이라는 갈등을 그대로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존과 이용의 갈등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데, 그 해결은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고 국립공원의 경우, 공원계획 수립단계가 바로 문제해결, 즉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국립공원계획은 해당 공원이 위치하는 지역 및 자원적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산악형, 해안형, 사적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경주국립공원은 공원자원의 특성에 따라서 문화사적자원의 비중이 높은 사적형 국립공원으로써 다른 국립공원과는 차별되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현재 다른 형태의 국립공원과 별다른 구분 없이 일괄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원의 자원특성을 중요시 하고 있는 사적형 국립공원인 경주국립공원의 지정목적과 활용이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과 차별화됨을 연구하기 위하여 경주국립공원과 덕유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을 평가 분석하여 경주국립공원이 국내 유일의 사적형 국립공원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관리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주국립공원과 타 국립공원 2곳을 경주국립공원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였다.

비교대상은 덕유산국립공원과 오대산국립공원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이유는 비교적 자연자원조사를 비롯하여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적합한 부분을 적용하기가 쉬운 국립공원을 선정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한 덕유산국립공원과 경주국립공원과 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오대산국립공원을 지리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①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

경주국립공원의 지구별 공원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자연공원법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시행령 제3조(지정기준), 자연공원법 제8조(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 시행령 제4조(자연공원의 폐지등)이 있으며 자연공원법 제3조와 관련한 지정기준에서 자연생태계 기준은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은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는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등이다.¹⁾

1) 환경부, 자연공원법(법·시행령·시행규칙), 2007, pp. 4-14.

② 평가기준의 설정

경주국립공원 평가기준표<표 1>의 지구별 구분은 A지구 토함산지구, B지구 남산지구, C지구 단석산지구, D지구 구미산지구, E지구 소금강산지구, F지구 화랑지구, G지구 서악지구, H지구 대본지구로 편의상 분류하여 표현하였으며 자연공원법 제3조와 관련하여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을 참고하여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등 5개 대분류를 정하고 대분류별로 소분류를 도출하여 평가기준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점수화하였다.

③ 비교 평가

경주국립공원과 덕유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적형 국립공원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지구별 현안과 과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다른 국립공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사유지로 구성되어있는 경주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에 대한 경주시와 경주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인계·인수가 진행될 때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1> 경주국립공원 평가 기준

지구별			평가기준				
자연공원지정기준			1	2	3	4	5
자연 생태 계	생태계 보전상태		1영급/ 미흡(-1)	2영급	3영급/ 보통	4영급	5영급/ 우수(+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종이상		
	천연기념물		1종	2종	3종	4종	5종이상
	보호야생동·식물		1종	2종	3종	4종	5종이상
	동 물 상	조류상	10종이하	15종이하	20종이하	25종이하	25종이상
		포유류	3종이하	5종이하	10종이하	15종이하	20종이상
		양서·파충류	1종이하	3종이하	5종이하	7종이하	7종이상
자연 경관	식물상		50종류 이하	100종류 이하	150종류 이하	200종류 이하	200종류 이상
	경 관 자 원	산봉우리	1개이하	2개	3개	4개	5개이상
		기암절벽	1개이하	2개	3개	4개	5개이상
		계곡	5개이하	10개이하	15개이하	20개이하	20개이상
		명소	1~2개	3~4개	5~6개	7~8개	9개이상
		폭포			1개		2개이상
	자연경 관 보전상 태	주변경관	보통		우수		아주우수
		내부경관	보통		우수		아주우수
		문화유적경관	보통		우수		아주우수
		시설물경관	보통		우수		아주우수
		입구경관	보통		우수		아주우수
문화 경관	지 정 문 화 재	국보	1점	2점	3점	4점	5점이상
		보물	1점	2점	3점	4점	5점이상
		사적	1점	2점이상			
		경북도유형문화재	1점	2점이상			
		문화재자료	1~2점	3점이상			
	비지정문화재		1~2점	3점이상			
	자연경관과의 조화		보통		우수		아주우수
지형 보존	해발고도		400m이하		500m이하		500m이상
	특이지형			1개이상			
	주변산업개발				없음		
	화장장/사격장						없음
위치 이용 편의	접근의 용이성		하		중		상
	균형적인 자연공원 입지성		일부적합		보통		적합
기타	민원						없음
	토 지 소 유	국·공유지	10%이하	20%이하	30%이하	40%이하	40%이상
		사유지	40%이상	4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특이기상		있음				
	수리·수문			영향없음			

II. 국립공원별 공원자원 현황분석

1. 경주국립공원²⁾

경주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조사에서 생태계보전상태는 토함산지구 3영급(68%) 참나무, 남산지구 4영급(42%) 소나무, 단석산지구 4영급(78%) 참나무, 구미산지구 3영급(51%) 소나무, 소금강지구 3영급(68%) 소나무, 화랑지구 3영급(57%) 소나무, 서악지구 4영급(46%) 소나무, 대본지구 3영급(52%) 곰솔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3영급에서 4영급까지가 조사되었으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남산지구에서 1종이 발견되었고 기타지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천연기념물은 토함산지구 5종, 남산지구 3종(청문), 단석산지구 1종, 구미산지구 2종, 대본지구 2종이 있으며 소금강지구, 화랑지구, 서악지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보호야생동·식물은 토함산지구 4종(청문), 남산지구 1종(청문), 단석산지구 2종(청문), 서악지구 1종이 발견되었으며 기타지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류는 토함산지구 44종, 남산지구 20종, 단석산지구 31종, 구미산지구 20종, 소금강지구 14종, 화랑지구 18종, 서악지구 11종, 대본지구 26종으로써 토함산지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포유류는 토함산지구 12종, 남산지구 6종, 단석산지구 13종, 구미산지구 9종, 소금강지구 3종, 화랑지구 4종, 서악지구 5종, 대본지구 9종으로써 단석산지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양서·파충류는 토함산지구 9종, 남산지구 4종, 단석산지구 12종, 구미산

2) 경주시, 경주국립공원관리계획, 2005, pp. 99-251.

임원현, 강기호, 김두환, 경주남산의 식물 군집구조, 경주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논문집 3호, 2000.

임원현, 이상명, 이유미, 이병천, 경주국립공원의 식물상, pp. 1-3.

지구 10종, 소금강지구 1종, 화랑지구 1종, 서악지구 3종, 대본지구 9종으로써 단석산지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식물상은 토함산지구 277종, 남산지구 455종, 단석산지구 34종, 구미산지구 44종, 소금강지구 94종, 화랑지구 58종, 서악지구 125종, 대본지구 54종으로써 남산지구에서 발견된 식물의 종수가 가장 많았다.

자연경관조사결과는 경관자원 항목에서 토함산지구는 산봉우리 3, 기암절벽 7, 계곡 22, 명소 5, 폭포 1, 남산지구는 산봉우리 8, 기암절벽 14, 계곡 22, 명소 5, 폭포 4, 단석산지구는 산봉우리 2, 기암절벽 4, 명소 3, 구미산지구는 산봉우리 1, 기암절벽 2, 계곡 14, 명소 2, 폭포 5, 소금강지구는 산봉우리 3, 기암절벽 4, 계곡 14, 명소 5, 화랑지구는 산봉우리 2, 계곡 11, 명소 3, 서악지구는 산봉우리 4, 기암절벽 1, 계곡 10, 명소 8, 대본지구는 명소 5가 조사되었다. 또한 자연경관보전상태 항목에서 토함산지구는 주변경관 도로경관 불량, 내부경관 양호, 문화유적경관 사찰경관, 시설물경관 인공물 부조화, 입구경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산지구는 주변경관 7번국도에서 조망, 내부경관 양호, 문화유적경관 옛사지 147, 사찰19, 시설물경관 순환도로, 70여개 답사코스, 입구경관 편의안내부족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석산지구는 주변경관 경부고속도로에서 조망, 내부경관 진달래 군락지, 기암괴석이 존재하고 문화유적경관은 신선사의 2곳, 시설물경관은 불량, 입구경관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미산지구는 주변경관이 전통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내부경관으로는 헬기장과 경주시내가 조망되며 문화유적경관은 용담사의 1곳, 시설물경관은 불량하고 입구경관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금강지구는 주변경관이 도로에서 조망되고

내부경관은 기암괴석과 계곡이 있으며 문화유적경관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시설물경관은 안내시설이 불량하고 입구경관은 광장 및 주차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랑지구는 주변경관이 도로에서 조망되고 내부경관은 경주시내가 조망되며 문화유적경관은 김유신묘가 있다. 또한 시설물경관은 부조화를 이루고 입구경관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악지구는 주변경관이 전통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내부경관은 특이경관이 없다. 문화유적경관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시설물경관은 부조화 상태이며 입구경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본지구는 주변경관이 도로에서 조망되며 내부경관은 해안형, 문화유적경관은 수증룡이 있고 시설물경관과 입구경관은 주변과 부조화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경관을 조사한 결과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에서 토함산지구가 국보 8, 보물 9, 사적 1, 도유형문화재 3, 문화재자료 3, 비지정문화재 5, 남산지구가 보물 10, 사적 1, 도유형문화재 10, 비지정문화재 33, 단석산지가 국보 1, 구미산지가 보물 1, 소금강지구가 보물 1, 사적 1, 도유형문화재 1, 문화재자료 1, 비지정문화재 5, 화랑지구가 사적 1, 비지정문화재 1, 서악지구가 보물 1, 사적 5, 대본지구가 국보 1, 사적 3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 토함산지구와 남산지구가 문화경관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지구는 문화경관자원이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자연경관과의 조화 항목은 단석산지가 국립공원중 가장 높은 산림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금강지구는 화랑지구와 이웃하며 도심지와 연결되어 있다. 화랑지구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악지구는 전형적인 농촌형태의 경관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본

지역은 해안경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형보존조사에서는 해발고도가 토함산지구 토함산745m, 남산지구 금오산 468m, 단석산지구 단석산827m, 구미산지구 구미산594m, 소금강지구 소금강산176m, 화랑지구 옥녀봉214m, 서악지구 선도산380m로써 단석산지구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특이지형은 남산지구에서 일천바위 1곳의 기타지구는 특이지형이 조사되지 않았다. 주변산업개발현황은 단석산지구 부근으로 경부고속철도 터널공사가 진행중이고 소금강지구 일대는 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건설공사가 시행중이다. 대본지구는 방폐장관련 공사가 지속적으로 시행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장장 및 사격장은 소금강지구 1곳에서 조사되었으며 기타 다른 지구에서는 조사결과 발견되지 않았다.

위치 및 이용편의 항목에서는 토함산지구는 국도14호, 국도7, 지방도 945가 발달해 있고 남산지구는 국도 35, 국도 7, 지방도 904가 발달해 있다. 단석산지구는 국도20, 지방도904, 구미산지구는 지방도 925, 소금강지구는 국도7, 국도4, 화랑지구는 국도4, 지방도 925, 서악지구는 국도 4, 대본지구는 국도31, 지방도 929가 발달해 있다. 조사결과 접근의 용이성과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입지성이 양호한 토함산지구, 남산지구, 단석산지구가 이용편의 측면에서 편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원항목에서는 소금강지구, 화랑지구, 대본지구가 민원이 발생한 지구로 조사되었고 기타 다른지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토지소유항목에서는 토함산지구 국공유지 30.0%, 사유지 61.0%, 남산지구가 국공유지 47.6%, 사유지 51.0%, 단석산지구가 국공유지 72.5%, 사유지 27.1%, 구미산지구가 국공유지 2.4%, 사유지 96.9%,

소금강지구가 국공유지 22.0%, 사유지 77.0%, 화랑지구가 국공유지 1.0%, 사유지 38.0%, 서악지구가 국공유지 26.7%, 사유지 70.0%, 대본지구가 국공유지 7.9%, 사유지 92.0%로 조사되었다. 조사에서는 사찰 및 기타 면적은 제외하였다. 조사결과 단석산지구를 제외하고는 사유지의 비율이 많게 조사되었다. 국립공원지구 내 특이기상은 조사되지 않았으며 수리·수문은 토함산지구가 주변에 보문호, 덕동호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으며 남산지구는 수계가 발달하지 않았고 산간계류도 수량과 폭이 작다. 단석산지구는 산간계류가 다양하게 발달하였고 소규모 저수지가 축조되어있다. 구미산지구는 농업용저수지인 남사저수지가 조사되었다. 소금강지구는 보문호와 인접하여 보문호의 영향권에 있고 화랑지구는 소규모 저수지와 농경지가 연결되어 있으나 수환경이 미비한 상태이다. 서악지구는 대천이 있으며 대본지구는 해안형에 해당되어 해안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덕유산국립공원³⁾

덕유산국립공원은 영,호남의 2개도 4개군에 걸쳐 있으며 197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공원구역 재조정 결과 231.650km²이다. 국·공유지가 74.9%이며, 사유지에 비하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경관자원은 산봉이 향적봉(1,614m), 적상산(1,029m), 남덕유산(1,507m), 칠봉(1,161m), 삿갓봉(1,410m), 무룡산(1,491m), 거칠봉(1,177m), 두문산(1,161m), 지봉(1,247m), 망봉(1,046m), 시루봉(1,105m), 기암이 송대, 안렴대, 장도암, 장수바위, 은구암, 청금대, 학소대, 수성대,

3)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2004, pp. 759-764.

수심대, 수경대, 안심대, 다연대가 있고 고개는 동엽령, 검령, 치마령, 계곡은 구천동, 송계사, 병곡, 산수리, 월성, 황골, 토옥동, 칠연계곡이 있고 폭포는 구천, 용추, 칠연, 송대, 연화폭포 등이 있다.

식물상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서 총 779종이 확인되었으며, 남부지역은 38목 96과 302속 491종 1아종, 73변종, 7품종으로 총 572종류가 기록되었다.

환경부지정 법정보호종은 고란초와 세뿔투구꽃, 솔나리, 산작약, 가시오갈피, 삼백초등 총 6종류가 관찰되었으나 주민들의 채취, 식재하는 경향과 인간간섭지역과의 인접, 자생지의 희소한 개체수 등으로 자생지 개발과 복원, 주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등으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보전정책이 요구된다.

특정식물종은 덕유산에서 남덕유산으로 이어지는 능선부를 중심으로 앓은부채, 솔나리, 금강애기나리, 옥잠난초, 나도바람꽃, 처녀치마, 백작약, 난쟁이바위솔등 총 109종류가 발견되었으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은 III등급은 19종류, IV등급은 7종류, V등급은 5종류로 총 31종류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식물군락지는 흰참꽃군락지, 관중군락지, 박새군락지, 고란초군락지, 큰앵초군락지, 처녀치마군락지 등 6개군락지로 인정되며 대부분 도로와 탐방로변에 위치하여 인간간섭에 의한 훼손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북부지역은 전체 97과 349속 511종 63변종 7품종으로 591종류로 나타났다. 이 중 특정식물은 46과 70속 83종류이며, 법정보호식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래식물은 9과 18속 21종류로서 전체 출현식물 중 3.6%로 나타났다.

덕유산국립공원의 대표적인 식생은 거제수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들메나무군락, 물푸레나무군락, 사스래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잣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주목-구상나무군락, 주목군락, 층층나무군락, 털진달래-철쭉꽃군락, 리기다소나무군락 등 16개 군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유류는 22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부지역은 5목 10과 2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 1종, 취약종인 고슴도치, 담비, 삥의 3종, 오소리, 멧토끼의 감소종 2종, 멧돼지, 노루, 고라니의 수렵종 3종 등이 분포 서식하고 있다. 북부지역은 6목 13과 21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하늘다람쥐, 환경부 지정 취약종인 고슴도치, 담비, 삥의 3종, 오소리, 멧토끼의 감소종 2종, 멧돼지, 노루, 고라니 등이 분포하고 있다.

조류는 80종이 확인되었으며 남부지역은 9목 30과 71종이 관찰되었다. 조사결과 두견이과, 지빠귀과, 휘파람새과, 되새과, 까마귀과가 우점하였는데, 붉은머리오목눈이가 최우점종이었다. 천연기념물은 원앙, 붉은배새매, 새매 그리고 황조롱이로 4종이 관찰되었고 보호종 및 특정종은 총 7목 11과 22종이 관찰되었다. 보호종의 경우 새홀리기와 아물쇠딱따구리 2종이 관찰되었다. 북부지역은 10목 26과 54종이 조사되었다. 구천동 계곡에서는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고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는 적상산 전망대와 구천동계곡 일대서 확인되었다.

양서·파충류는 4목 9과 20종으로 이중 양서류는 2목 5과 9종, 파충류는 2목 4과 11종이 확인되었다. 전체 20종 중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은 없었으며, 보호야생종은 까치살모사 1종이었다. 양서류의 우점

종은 무당개구리였으며 다음으로는 북방산개구리였다. 파충류는 아무르장지뱀이 우점하였으며 다음은 쇠살모사, 유혈목이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자원으로는 <표 2>와 같으며 안국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267호)을 비롯 극락전(전북유형문화재 제42호)을 포함한 지방문화재가 4점이 있고 지방기념물로는 주목군총(전북기념물 제2호)과 더불어 7점이 있다. 또한 총연장 8,143m인 적상산성은 주요사적(제146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로는 무주군 설천면 반송(천연기념물 제291호)이 있다.

<표 2> 문화자원현황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지방문화재
1	1	1	4
영산회괘불탱 (제1267호)	적상산성 (제146호)	반송 (제291호)	안국사극락전(41호) 호국사비(85호) 매월당부도(43호) 정관당부도(102호)

* 지방기념물(7점): 주목군총(2호), 칠연의총(27호), 백련사지(62호), 백련사계단(42호), 원통사지(67호), 서벽정(80호), 적상산사고지(88호)

3. 오대산국립공원⁴⁾

오대산은 해발 1,563m의 비로봉을 주봉으로 동대산(1,434m), 두로봉(1,422m), 상왕봉(1,491m), 호령봉(1,561m)등 다섯봉우리가 병풍처럼 늘어서 있고 동쪽으로 따로 떨어져나온 노인봉(1,338m) 아래로는 천하의 절경 소금강이 자리한다. 원래 오대산은 중국 산서성 청량산의 별칭으로 신라시대에 자장율사가 당나라 유학 당시 공부했던 곳이다. 그가

4)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2004, pp. 723-731.

귀국하여 전국을 순례하던 중 태백산맥의 한가운데 있는 산의 형세를 보고 중국 오대산과 너무나 흡사하여 이 산을 오대산이라 이름 붙였다고 옛 문헌에 전하는데 이것이 지금의 오대산국립공원이다.

자연자원으로는 산봉인 비로봉(1,563m), 상왕봉(1,491m), 호령봉(1,561m), 두로봉(1,422), 동대산(1,434m), 노인봉(1,338m), 황병산(1,407m)이 있고 기암은 만물상, 석당암, 백운대, 삼선암, 청심대, 계곡은 청학동 계곡, 안개자니 계곡, 구룡폭 계곡, 신선 계곡, 조개골, 백마봉 계곡, 폭포는 구룡폭포, 낙영폭포, 광폭, 삼폭, 세심폭포, 용수폭포, 비봉폭포, 청심폭포, 약수는 방아다리 약수, 송천 약수, 천연기념물은 명주삼산리 소나무(350호)가 있다.

사찰은 월정사, 상원사, 금강사, 사자암, 관음사, 수정암, 지장암, 미륵암, 적멸보궁이 있으며 월정사 경내에는 국보 47호 팔각구층석탑과 석조보살좌상(보물 139호)가 보존되어 있다. 상원사 경내에는 상원사 동종(국보 36호), 문수동자좌상(국보 221호)등 국보 2점과 중창권선물을 비롯 보물 2점이 있다. 또한 국보 37호인 오대산 사고지가 있다.

지형경관은 모두 147개의 지형경관자원이 조사 분석되어 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지역에서 관찰되는 지형은 풍화지형, 산지지형, 하천지형, 구조지형, 호소지형, 주빙하지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가운데 구조지형의 노두(outcrop)가 55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풍화지형(51개), 하천지형(31개), 산지지형(8개), 호소지형(1개), 주빙하지형(1개)순으로 나타난다.

식물상은 양치식물이상의 고등식물은 91과 350속 555종 1아종 85변종 14품종으로 총 655분류군이었으며, 종다양성을 나타내는 양치식물계수

는 1.15였다.

한국특산식물로 진범, 홀아비바람꽃, 요강나물, 할미밀망, 새끼노루귀, 참고추냉이, 흰팽이눈, 산오이풀, 털조룩싸리, 노랑갈퀴, 개시닥나무, 터리풀, 금강제비꽃, 지리산오갈피나무, 지리강활, 참좁쌀풀, 개나리, 참배암차즈기, 오동나무, 그늘송이풀, 청괴불나무, 병꽃나무, 금마타리, 외대잔대, 금강초롱꽃, 사늬박쥐나물, 고려영경귀, 분취, 금강애기나라, 지리대사초 등 30종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특산식물을 제외한 희귀 및 위기식물로는 끈끈이장구채, 너도바람꽃, 등취, 백작약, 도깨비부채, 톱바위취, 태백제비꽃, 지리산오갈피나무, 가시오갈피나무, 꽃개회나무, 미치광이풀, 토현삼, 산마늘, 연영초, 애기얇은부채, 개불알풀, 천마 등 17종류가 출현하였다.

귀화식물은 생태계 위해식물로 지정된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을 포함하여 애기수영, 소리쟁이, 미국자리공, 쯤명아주, 다닥냉이, 말냉이, 족제비싸리, 아까시나무, 토끼풀, 붉은토끼풀, 가중나무, 달맞이꽃, 둥근잎유홍초, 미국쑥부쟁이, 미국가막사리, 지느러미영경귀, 대롱국화, 개망초, 망초, 털별꽃아재비, 개쑥갓, 서양민들레, 오리새, 큰조아재비 등 26종류가 출현하고 있으며, 자연파괴도는 9.25로 낮았으며 귀화율도 3.9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희귀식물 군락으로는 금강초롱꽃, 가시오갈피나무, 물황철나무, 주목, 마가목, 전나무군락이 대표적이며, 고층습원인 질피늪 지역이 있다.

오대산국립공원에서 서식이 확인된 포유동물은 총 5목 11과 19종의 포유동물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식충목 땃쥐과 땃쥐, 두더지과 두더지, 식육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 수달, 오소리, 담비, 대륙족제비, 고양이

이과 삥, 소목 멧돼지과 멧돼지, 사슴과 고라니, 노루, 소과 산양, 쥐목 다람쥐과 청설모, 다람쥐, 하늘다람쥐, 쥐과 대륙밭쥐, 등줄쥐, 흰넓적다리붉은쥐, 토기목 토끼과 멧토끼 등이있다. 이중에서 법적보호동물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수달, 산양과 보호종인 담비, 하늘다람쥐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조류는 총 67종이 있으며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종은 박새고 그다음 쇠박새, 노랑턱멧새이며 생태지고 표기종은 모두 15종이었다. 그중, 환경부 멸종위기종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보호종은 1종(가막딱다구리), 특정종은 14종(원앙, 황조롱이, 들꿩, 매사촌, 검은등빼꾸기, 빼꾸기, 병어리빼꾸기, 두견, 파랑새, 청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솔밭새)이 있다.

양서류는 2목 5과 6속 내에 12종이 있고 파충류는 1목 3과 4속 내에 8종이 있다. 양서류에 있어서는 계곡산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순으로 높은 우점도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참개구리, 청개구리, 옴개구리, 중국산개구리의 경우는 낮은 우점도를 나타내고 분포도 극히 제한적이다.

파충류에 있어서는 아무르장지뱀, 쇠살모사, 유혈목이 및 누룩뱀의 순으로 높은 우점도를 보이는 반면 까치살모사, 무자치, 줄장지뱀의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 지역들에서 소수 확인됨으로 이들의 개체군집은 안정적이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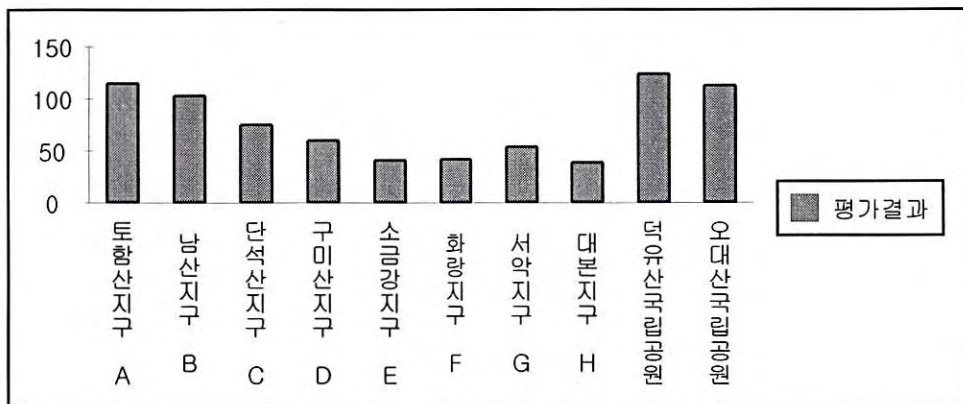
Ⅲ. 경주국립공원의 현안과 과제

1 경주국립공원의 지구별 현안과 과제

1) 현안

① 경주국립공원

본 연구에서 작성한 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경주국립공원의 각 지구별 평가결과를 도출한 결과 토함산지구가 총점 154점 중 116점(75.3%)로 평가되어 경주국립공원 8개지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지구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 남산지구가 104점(67.5%)로 평가되었으며, 단석산지구 76점(49.4%), 구미산지구 61점(39.6%), 서악지구 55점(35.7%), 화랑지구 43점(27.9%), 소금강지구 42점(27.3%), 대본지구 40점(26.0%) 순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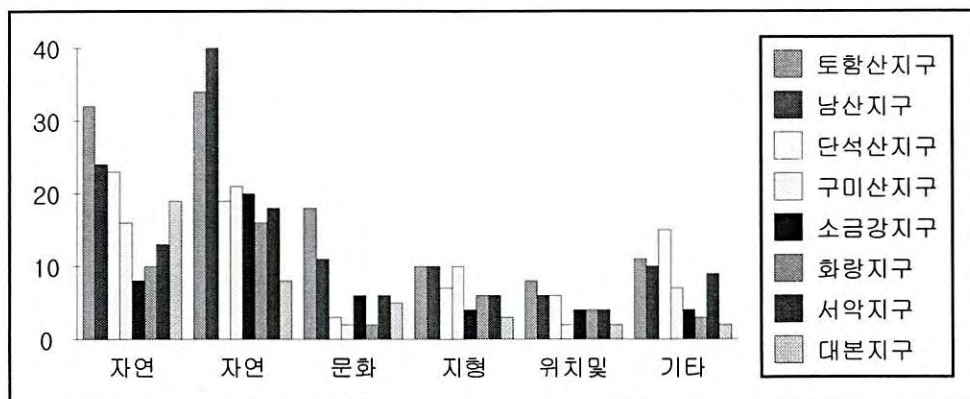
<그림 1> 경주국립공원과 타국립공원 평가결과 비교

이러한 경주국립공원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연생태계가 가장 우수한 지구는 토함산지구이며, 자연경관부분은 남산지구가 가장 우수

한 지구로 평가되었다. 남산지구는 문화경관을 제외하고는 예상외의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남산지구가 경관자원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한 기존 연구가 잘 되어 있고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평가에 참고할 수 있음으로써 다른 지구에 비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경주국립공원 8개 지구를 법적근거를 토대로 작성한 평가기준에 따라 도출한 결과 토함산지구, 남산지구, 단석산지구, 구미산지구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과 비교하여 어느정도의 국립공원의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소금강지구, 화랑지구, 서악지구, 대본지구는 평가점수 50점대 이하로 도출되어 국립공원 지정 기준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른 국립공원과 비교하기 위하여 경주국립공원 지정기준표를 적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다른 국립공원 2곳과의 비교를 점수화함으로써 경주국립공원의 지정수준을 데이터화하고 앞으로 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2> 경주국립공원 분야별 평가

<표 3> 경주국립공원 평가결과

지구별		토 합 산	남 산	단 석 산	구 미 산	소 금 강	화 랑	서 악	내 본
자연공원지정기준									
자연 생태 계	생태계보전상태	4	3	5	2	2	2	3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	3	-	-	-	-	-	-
	천연기념물	5	3	1	2	-	-	-	2
	보호야생동·식물	4	1	2	-	-	-	1	-
	동물상	조류상	5	3	5	3	2	3	2
		포유류	4	3	4	3	1	2	2
		양서·파충류	5	3	5	5	1	1	2
	식물상	5	5	1	1	2	2	3	2
소계		32	24	23	16	8	10	13	19
자연 경관	경관자 원	산봉우리	3	5	2	1	3	2	4
		기암절벽	5	5	4	2	4	-	1
		계곡	5	5	-	3	3	3	2
		명소	3	5	2	1	3	2	4
		폭포	3	5	-	5	-	-	-
	자연경 관보전 상태	주변경관	1	3	1	1	1	1	1
		내부경관	3	3	5	1	3	1	1
		문화유적경관	5	5	3	3	1	3	3
		시설물경관	3	3	1	1	1	1	1
		입구경관	3	1	1	3	1	3	1
	소계		34	40	19	21	20	16	18
문화 경관	지정문 화재	국보	5	-	1	-	-	-	1
		보물	5	5	-	1	1	-	1
		사적	1	1	-	-	1	1	2
		경북도유형문화재	2	2	-	-	1	-	-
		문화재자료	2	-	-	-	1	-	-
	비지정문화재		2	2	-	-	2	1	-
	자연경관과의 조화		1	1	3	1	-	-	1
	소계		18	11	3	2	6	2	6
지형 보존	해발고도		5	3	5	5	1	1	1
	특이지형		-	2	-	-	-	-	-
	주변산업개발		3	3	-	3	-	3	3
	화장장/사격장		5	5	5	5	-	5	5
	소계		10	10	7	10	4	6	6
위치 및 이용 편의	접근의 용이성		3	3	1	1	3	3	3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입지성		5	3	5	1	-	-	-
	소계		8	6	6	2	4	4	4
기타	민원		5	5	5	5	-	-	5
	토지소 유	국·공유지의 비율	3	4	5	1	3	1	3
		사유지의 비율	1	1	3	1	1	2	1
	특이기상		-	-	-	-	-	-	-
	수리·수문		2	-	2	-	-	-	-
	소계		11	10	15	7	4	3	9
총계		116	104	76	61	42	43	55	40
백분율(%)		75.3	67.5	49.4	39.6	27.3	27.9	35.7	26.0
종합판정결과		1	2	3	4	7	6	5	8

② 덕유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에 대하여 경주국립공원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 총점 154점에 125점(81.2%)으로 평가되었으며 경주국립공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립공원지정기준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생태계 지정기준 항목에서는 37점으로 양호한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생태계 보전상태는 식물상이 전체적으로 보아 신갈나무가 우점하여 고도 1,300m에서부터 한 대성 침엽수인 구상나무와 주목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산정부근에서 관목대로 바뀌는 형태를 보인다.

포유류는 총 22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구천계곡에서 서식하고 있고 보호종인 삿, 담비, 하늘다람쥐가 발견되었다.

조류상은 총 80종이 발견되었으며 그중에서 천연기념물 원앙, 붉은배새매, 새매, 황조롱이 등 4종, 새홀리기, 아물쇠딱따구리 등 보호종 2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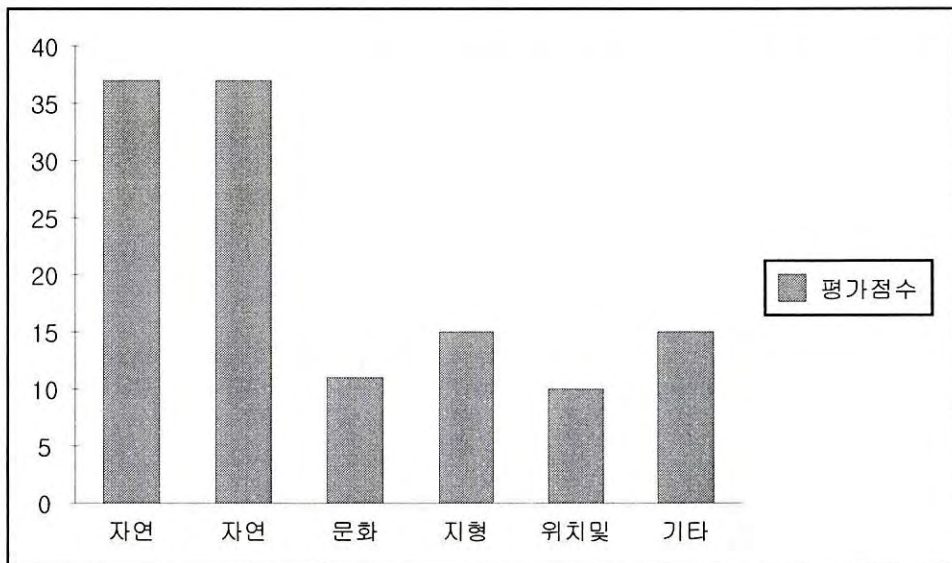
양서·파충류는 4목 9과 20종이 있으며, 식물상은 법정보호종 6종류로써 고란초, 세뿔투구꽃, 솔나리, 산작약, 가시오갈피, 삼백조가 있고 남부지역에서는 96과 302속 491종 1아종 73변종 총 572종류, 북부지역에서는 97과 341속 511종 63변종 7품종 591종류가 있다.

자연경관 항목에서도 37점으로 평가되어 우수하게 평가받았으며 세부적으로 산봉우리는 향적봉외 11곳, 기암은 송대외 11곳, 고개는 동엽령외 2곳, 계곡은 구천동외 7곳, 폭포는 구천외 4곳 주요명소는 나팔암외 4곳, 보물 제1267호 영산회괘불탱, 사적146호 적상산성, 천연기념물 291호 반송, 지방문화재 41호 안국사 극락전외 3점, 지방기념물 2호 주

목군총의 6점이 있다.

접근의 용이성 항목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개통후 접근이 양호해졌으며 전남, 광주에서 2시간 30분, 전북권 전주에서 1시간 30분, 영남권, 대구에서 2시간 30분, 부산에서 3시간 30분으로 접근성이 좋다.

또한 국공유지 비율이 74.9%, 사유지비율이 25.1%로써 경주국립공원에 비하여 국공유지의 비율이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있다.



<그림 3> 덕유산국립공원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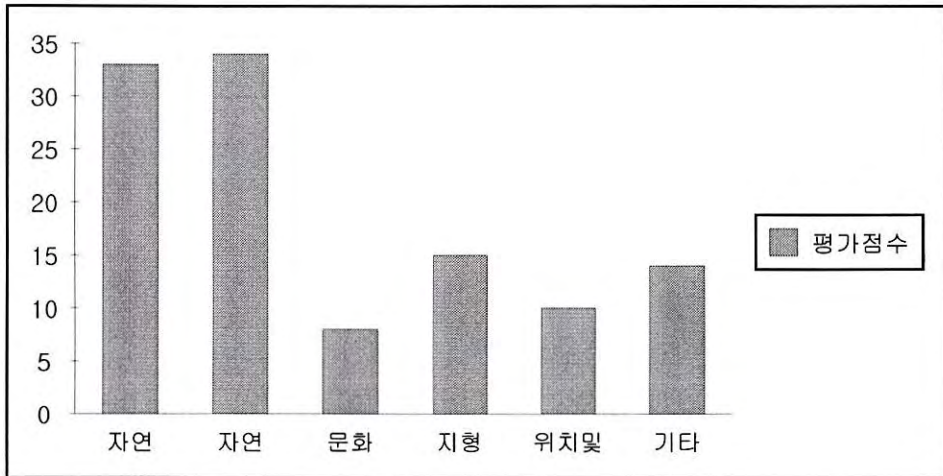
덕유산국립공원의 종합평가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덕유산국립공원 평가결과

자연공원지정기준			국립공원/평가내용)	평가 점수	평가내용
자연 생태 계	생태계보전상태			5	전체 신갈나무우점, 1,300이상 구상나무, 주목 출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3	수달
	천연기념물			5	총 5종: 포유류1종(수달), 조류4종
	보호야생동·식물			4	총4종: 포유류 2종, 조류 2종
	동물상	조류상		5	80종류
		포유류		5	22종류
		양서·파충류		5	4목 9과 20종
	식물상			5	779종류
소계			37		
자연 경관	경관자 원	산봉우리		5	12곳
		기암절벽		5	12곳
		계곡		2	8곳
		명소		3	5곳
		폭포		5	5곳
	자연경 관보전 상태	주변경관		5	아주우수
		내부경관		5	아주우수
		문화유적경관		1	보통
		시설물경관		1	보통
		입구경관		5	아주우수
소계			37		
문화 경관	지정문 화재	국보		0	없음
		보물		1	1점
		사적		1	1점
		경북도유형문화재		2	지방문화재 4점
		문화재자료		2	지방기념물 7점
	비지정문화재			0	
	자연경관과의 조화			5	아주우수(천연기념물1점: 반송)
소계			11		
지형 보존	해발고도			5	항적봉(1,614m)
	특이지형			2	1개이상
	주변산업개발			3	없음
	화장장/사격장			5	없음
	소계			15	
위치 및 이용 편의	접근의 용이성			5	상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입지성			5	적합
	소계			10	
기타	민원			5	없음
	토지소 유	국·공유지의 비율		5	74.9%
		사유지의 비율		3	25.1%
	특이기상			-	없음
	수리·수문			2	영향없음
	소계			15	
총계				125	총점154점 기준
백분율(%)				81.2	
종합판정결과				1	경주국립공원과 비교하여 1위

③ 오대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에 대하여 경주국립공원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 총점 154점에 114점(74.0%)으로 평가되었으며 경주국립공원과 비교하여 토함산 다음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 오대산국립공원 평가결과

자연공원지정기준 자연생태계 항목에서는 33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생태계보전상태는 삼신산(금강산, 지리산, 한라산)과 더불어 국내 제일의 명산으로 꼽던 성산이며 희귀자원군락과 종다양성이 풍부하며 고산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동·식물자원이 풍부하다.

포유류는 5목 11과 19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산양이 서식하고 보호종인 담비, 하늘다람쥐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조류상은 총 67종이 발견되었으며 그중에서 그 중에서 보호종은 가막딱따구리가 있고 멸종위기종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서류는 2목 5과 12종이 있고 파충류는 1목 3과 4속 8종이 있

다.

식물상은 91과 350속 555종 1아종 85변종 14품종 총 655종류가 있으며 희귀 및 위기식물은 끈끈이 장구채, 너도바람꽃 등 17종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희귀식물군락이 금강초롱꽃, 가시오갈피나무, 물황철나무, 주목, 마가목, 전나무군락이 있고 고층습원으로써 질피늪이 있다.

자연경관 항목은 34점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평가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산봉우리는 비로봉(1,563m)등 1,300m ~ 1,500m 대의 봉우리 7곳, 기암은 만물상등 5곳, 계곡은 청학동계곡등 6곳, 폭포는 구룡폭포등 8곳, 천연기념물 350호 명주삼산리 소나무, 36호 상원사 동종, 국보 37호 오대산사고지, 47호 팔각구층석탑, 221호 문수동자좌상, 보물 139호 석조보살좌상 등 3점 외 평가결과에 데이터화되지 못한 부분들은 문헌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였다.

접근의 용이성은 홍천군, 평창군, 명주군에 걸쳐있어 중부지방과 영동지방으로부터 접근이 양호하고 평창군의 진부면과 홍천군을 중심으로 서울, 삼척, 속초, 원주에서의 도로와 철도로 접근이 양호하다. 또한 국공유지 비율이 66.7%, 사유지비율이 33.3%로써 경주국립공원에 비하여 국공유지의 비율이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오대산국립공원의 종합평가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오대산국립공원 평가결과

자연공원지정기준			국립공원/평가내용)	평가 점수	평가내용
자연 생태 계	생태계보전상태			5	희귀자원군락, 종다양성 풍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3	2종: 수달, 산양
	천연기념물			1	1종: 포유류1종(수달)
	보호야생동·식물			5	총20종: 포유류 2종, 조류 1종, 식물17종
	동물상	조류상		5	67종류
		포유류		4	19종류
		양서·파충류		5	3목 8과 10속 20종
	식물상			5	655종류
소계			33		
자연 경관	경관자 원	산봉우리		5	7곳
		기암절벽		5	5곳
		계곡		2	6곳
		명소		0	
		폭포		5	8곳
	자연경 관보전 상태	주변경관		5	아주우수
		내부경관		5	아주우수
		문화유적경관		1	보통
		시설물경관		1	보통
		입구경관		5	아주우수
소계			34		
문화 경관	지정문 화재	국보		0	4점
		보물		3	3점
		사적		0	
		경북도유형문화재		0	
		문화재자료		0	
	비지정문화재			0	
	자연경관과의 조화			5	아주우수(천연기념물 열목어 서식 등)
	소계			8	
지형 보존	해발고도			5	비로봉(1,563m)
	특이지형			2	1개이상
	주변산업개발			3	없음
	화장장/사격장			5	없음
	소계			15	
위치 및 이용 편의	접근의 용이성			5	상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입지성			5	적합
	소계			10	
기타	민원			5	없음
	토지소 유	국·공유지의 비율		5	66.7%
		사유지의 비율		2	33.3%
	특이기상			-	없음
	수리·수문			2	영향없음
	소계			14	
총계				114	총점154점 기준
백분율(%)				74.0	
종합판정결과				2	경주국립공원과 비교하여 2위

2) 과제

경주국립공원 8개지구에 대한 평가결과와 덕유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는 <표 6>와 같다.

종합평가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덕유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등 다른 국립공원과 비교하여 경주국립공원은 국립공원지정기준에 부족한 지구가 발견되었다.

즉 경주국립공원 8개 지구 중 토함산지구, 남산지구는 덕유산국립공원 및 오대산국립공원과 비슷한 수준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본지구, 소금강지구, 화랑지구, 서악지구는 타 국립공원과 비교 분석했을 때 평가점수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대본지구, 소금강지구, 서악지구는 토함산지구, 남산지구 및 타 국립공원에 비하여 평가결과가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공원으로써의 지정기준에 부합할 뿐 만 아니라 국립공원으로써는 전혀 가치가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본지구와 소금강지구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곳으로써 경주국립공원 8개 지구 중에서 대본지구, 소금강지구, 화랑지구, 서악지구 4개 지구는 순차적으로 경주국립공원지구에서 해제하여 공원구역을 4개 지구로 유지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토함산지구, 남산지구, 단석산지구, 구미산지구는 경주국립공원지구로써 계속하여 관리하되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사적형 국립공원으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른 국립공원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경주만의 차별화된 사적

형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방안마련과 사적전문가를 국립공원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국립공원 평가결과 종합

		지구별	토 합 산	남 산	단 석 산	구 미 산	소 금 강	화 랑	서 악	대 본	덕 유 산	오 대 산
자연공원지정기준												
자연 생태 계	생태계보전상태		4	3	5	2	2	2	3	2	5	5
	멸종위기야생동·식물		-	3	-	-	-	-	-	-	3	3
	천연기념물		5	3	1	2	-	-	-	2	5	1
	보호야생동·식물		4	1	2	-	-	-	1	-	4	5
	동물상	조류상	5	3	5	3	2	3	2	5	5	5
		포유류	4	3	4	3	1	2	2	3	5	4
		양서·파충류	5	3	5	5	1	1	2	5	5	5
	식물상		5	5	1	1	2	2	3	2	5	5
소계		32	24	23	16	8	10	13	19	37	33	
자연 경관	경관자 원	산봉우리	3	5	2	1	3	2	4	-	5	5
		기암절벽	5	5	4	2	4	-	1	-	5	5
		계곡	5	5	-	3	3	3	2	-	2	2
		명소	3	5	2	1	3	2	4	3	3	0
	자연경 관보전 상태	폭포	3	5	-	5	-	-	-	-	5	5
		주변경관	1	3	1	1	1	1	1	1	5	5
		내부경관	3	3	5	1	3	1	1	1	5	5
		문화유적경관	5	5	3	3	1	3	3	1	1	1
		시설물경관	3	3	1	1	1	1	1	1	1	1
		입구경관	3	1	1	3	1	3	1	1	5	5
소계		34	40	19	21	20	16	18	8	37	34	
문화 경관	지정문 화재	국보	5	-	1	-	-	-	-	1	0	0
		보물	5	5	-	1	1	-	1	-	1	3
		사적	1	1	-	-	1	1	2	2	1	0
		경북도유형문화재	2	2	-	-	1	-	-	-	2	0
	문화재자료	2	-	-	-	1	-	-	-	2	0	
	비지정문화재		2	2	-	-	2	1	-	-	0	0
	자연경관과의 조화		1	1	3	1	-	-	-	1	5	5
소계		18	11	3	2	6	2	6	5	11	8	
지형 보존	해발고도		5	3	5	5	1	1	1	1	5	5
	특리지형		-	2	-	-	-	-	-	-	2	2
	주변산업개발		3	3	-	3	-	3	3	-	3	3
	화장장/사격장		5	5	5	5	-	5	5	5	5	5
	소계		10	10	7	10	4	6	6	3	15	15
위치 이용 편의	접근의 용이성		3	3	1	1	3	3	3	1	5	5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입지성		5	3	5	1	-	-	-	-	5	5
	소계		8	6	6	2	4	4	4	2	10	10
기타	민원		5	5	5	5	-	-	5	-	5	5
	토지소 유	국·공유지의 비율	3	4	5	1	3	1	3	1	5	5
		사유지의 비율	1	1	3	1	1	2	1	1	3	2
	특이기상		-	-	-	-	-	-	-	-	-	-
	수리·수문		2	-	2	-	-	-	-	-	2	2
	소계		11	10	15	7	4	3	9	2	15	14
총계			116	104	76	61	42	43	55	40	125	114
백분율(%)			75.3	67.5	49.4	39.6	27.3	27.9	35.7	26.0	81.2	74.0
종합판정결과			2	4	5	6	9	8	7	10	1	3

2. 경계 불부합 지역 조정문제와 과제

1) 국립공원 경계 불부합 현황

현재, 2003년 환경부에서 고시한 국립공원경계와 2001년 경상북도에
서 고시한 경주시의 공원경계는 <그림 5>와 같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
며 경주시 국립공원경계와 환경부 국립공원경계의 내,외부 불부합 현황
은 <표 7>과 같다.



<그림 5> 경주국립공원 경계 불부합 총괄도

<표 7> 경주시_환경부 국립공원경계의 내,외부 불불합 현황 단위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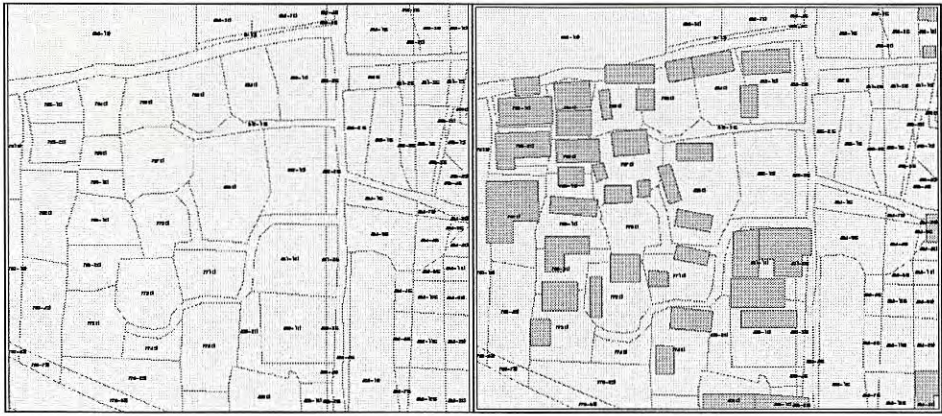
지구명	구미산지구	남산지구	단석산지구	대본지구
일치	5,789,545.45	21,730,034.41	12,806,145.31	3,990,757.27
내부	145,986.92	1,028,987.67	98,394.72	515,633.16
외부	326,561.00	767,109.23	100,557.20	153,389.09
지구명	서악지구	소금강지구	토함산지구	화랑지구
일치	3,758,056.57	5,342,623.55	78,325,960.75	3,265,735.03
내부	128,151.93	242,304.36	973,371.63	145,319.38
외부	37,601.67	58,873.72	1,999,681.86	143,430.97

이러한 수치지적도와 수치지형도상에서 나타나는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은 사회적으로 토지분쟁을 야기시키고 토지 거래 질서를 문란케하였으며, 행정적으로는 토지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사업비와 국민적인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경주시와 환경부 국립공원경계의 불일치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형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환경부의 공원경계를 경주시의 지적도상에서 표현 했을 때의 오류가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실제로 아래의 <그림 6>와 같이 경주시에서 민원발급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1200 수치지적도와 건축물의 위치역시 상당한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주시의 행정적인 오류나 착오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

라 두 주제도의 기본이 되는 수치지적도와 수치지형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그림 6> 수치지적도와 수치지형도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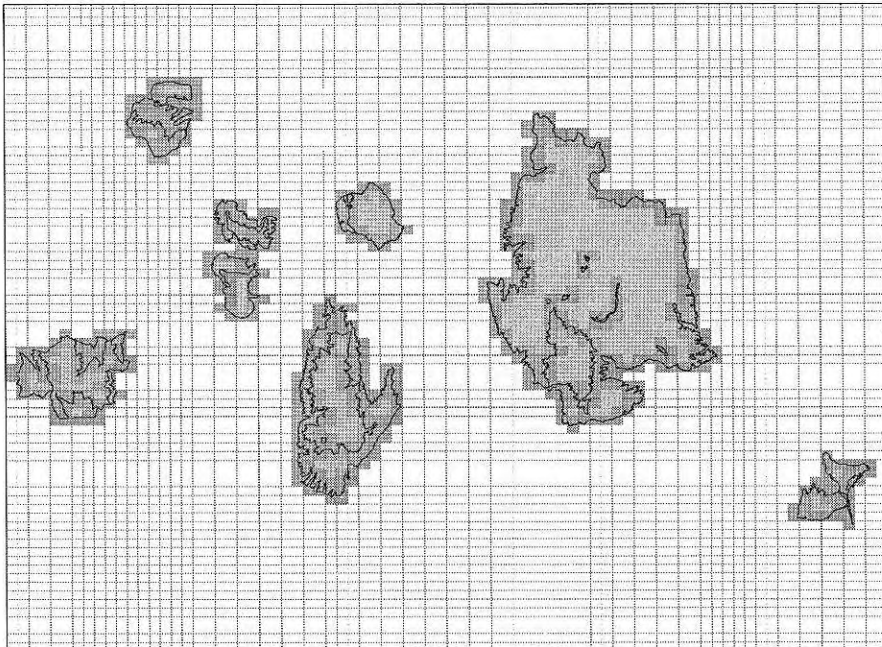
하물며 경주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원발급용 수치지적도상에 그대로 얹혀진 환경부고시 국립공원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환경부의 국립공원경계를 재조정해야하는데 이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본지구의 경우 경주시의 국립공원경계선이 환경부의 경계선을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다. 경주시의 국립공원경계에 포함된 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포함되어있어 향후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에 따른 문제점은 수치지형도(1:5,000)를 기준으로 제작되는 환경부의 결정고시도면과 도시관리계획상 사용되어지는 경주시 지적도(1:1,200)의 이원적 관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경

계측량을 통해 지적불부합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맞으나, 측량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지적도근점 좌표측량(GPS측량) 등을 통해 지적도의 오차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일 것이다.

현재 경주국립공원 경계를 포함하는 1:1200지적도 도곽의 수는 약 603도엽이며 각 도엽은 가로 500m, 세로 400m로 각 도엽당 오차범위는 약 1m 미만 이므로 도엽당 1개 이상의 지적도근점 측량을 통한 지적도와 지형도의 오차범위를 1m 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7> 경주국립공원지구의 경계불부합

수치도화의 축척별 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8> 수치도 축척별 오차범위

도화축척	표준편차			최대오차			비고
	평면위치	등고선	표고점	평면위치	등고선	표고점	
1/1,000	0.2m	0.3m	0.15m	0.4m	0.6m	0.3m	
1/5,000	1.0m	1.0m	0.5m	2.0m	2.0m	1.0m	
1/25,000	5.0m	3.0m	1.5m	10.0m	5.0m	2.5m	

2) 문화재 보호구역과의 중복지정 문제

경주국립공원의 문화재보호구역은 총 41개소 22,187,387㎡이고 남산지구가 20,511,343 ㎡로써 전체의 91.17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문화재보호구역 현황도

<표 9>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

지구명	면적(m ²)	개소	문화재보호구역(m ²)
구미산지구	6,116,106	1	700 (0.01%)
남산지구	22,497,143	17	20,511,343 (91.17%)
단석산지구	12,906,702	1	6,759 (0.05%)
대본지구	4,144,146	4	76,494 (1.85%)
서악지구	3,795,658	4	74,619 (1.97%)
소금강지구	5,401,497	5	46,643 (0.86%)
토함산지구	80,325,642	8	1,469,862 (1.83%)
화랑지구	3,409,166	1	968 (0.03%)
계	138,596,060	41	22,187,387 (16.01%)

IV. 공원시설 관리체계 개선 방안

1. 공원시설 인계·인수기준

경주국립공원의 공원시설에 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인계·인수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첫째 자연공원법 제2조에 근거, 공원계획에 반영된 공원시설, 둘째 "가"항을 충족하고 시설의 소유가 국·공유인 공공시설, 교통운수 시설, 편익시설, 셋째 비수익시설은 무상인수, 수익시설은 유상매입, 넷째 공원시설과 해당부지를 일괄 인계·인수한다.⁵⁾

2. 공원시설별 검토

공원계획에 반영된 경주국립공원의 공원시설은 진입도로2곳, 탐방로7곳, 주차장 2곳, 휴게소 2곳, 전망대 1곳, 공중화장실 13곳, 전시관 2곳 등 총 29곳이 있으며 경주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리·소유권을 인계할 부분은 진입도로 1곳, 탐방로 7곳, 주차장 1곳, 휴게소 1곳, 전망대 1곳, 공중화장실 3곳, 전시관 3곳 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 10>과 같다.

남산지구 순화도로(포석교~탐마울) 12km 도로부지는 95%이상이 시·도유지이고 현재 차량통행중이며 탐방로로 이용중이다. 또한 순환도로와 연계되어 법정, 비법정탐방로가 산재되어 있어 향후 탐방로 정비, 통

5) 환경부, 자연공원법 제2조, 2007, p. 4.

제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향후 공원계획 조정 시 '진입도로 → 탐방로' 변경검토가 요망된다.

도함산지구(불국사~석굴암) 8km는 시도42번(석굴로)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기존 도로망 관리와 연계하여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향후 공원계획 조정 시 진입도로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원계획에 반영된 탐방로는 7개구간 22.7km이며 전 구간에 대한 재검토 후 공원계획 조정이 비법정탐방로와 연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탐방로 상 안전시설물, 이정표 등도 함께 인계함이 바람직하다. 구간별 탐방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약목골-해목령 2.1km구간은 탐방로 노면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경사도 약5%로 산책을 겸한 조식 이용객이 많고 상서장, 부처골, 일성왕릉 등으로 연결되는 샛길이 다수 생성되어 있으며 상서장 입구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향후 탐방로를 상서장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된다.

불무사 - 전망대 2.5km구간은 탐방로 산태가 양호한 상황으로 이용도가 높지 않은 구간으로써 현강왕릉, 정강왕릉으로 연결되는 샛길이 생성되어 있고 이용률은 비교적 낮다. 향후 상서장 입구로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통일전 - 전망대 1.3km구간은 탐방객의 이용률이 높은 구간으로 노면 쇄굴, 뿌리노출 등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또한 비교적 경사가 급한 구간이며 국사골, 철와골로 연결되는 샛길이 생성되어 있어, 탐방로 정비, 샛길통제, 유도시설 설치를 통한 탐방노선 조정이 필요하다.

포석정 - 전망대 3.6km구간은 탐방객 이용도가 낮은 구간으로 계곡과
연접하여 탐방하는 코스이다. 부흥사에서 5층석탑 구간은 사적관리 측
면에서 유지관리하고 향후 포석정 - 부흥사 구간은 공원계획상 탐방로
에서 폐지함이 바람직하고 진입도로를 활용한 탐방유도가 요구된다.

삼릉 - 전망대 3.0km구간은 진입부에 서남산주차장이 조성되면서 남
산지구에서 탐방객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구간으로 훼손압력이 심화되
고 있는 구간이다. 탐방객의 대부분이 금오봉까지 탐방하고 있으며 현
탐방로 고시노선 중 개설되지 않은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공원계획 변
경시 노선조정이 필요하다.

관음사 - 칠불암 5.3km구간 역시 비교적 탐방객의 이용률이 높은 구
간으로써 탐방로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구간이다. 특히 열반재에서
고위봉구간, 칠불암에서 고위봉구간의 훼손상태가 심하여 시급히 정비
가 필요하다.

와룡사 - 천룡굴 4.9km구간은 공원계획 고시노선과 탐방객 이용노선
이 상이하여 공원계획 변경 시 노선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

석굴암 주차장은 휴게소를 포함하여 경주에서 유상 매각하여 (주)
일오삼 주차장은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요망된다. 또한 경주시에
서 사찰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기림사 주차
장은 부지소유가 사찰이며, 현재 주차료를 사찰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찰(기림사)에서 유지관리함이 바람직하다.

토함산 휴게소는 석굴암 주차장과 연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유상 매수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하고 황룡동 휴게소는 사유시설로 소유
자가 계속해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

전망대는 비 수익시설로써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무상인계후 관리하고 공원계획상 고시도면과 실제위치 상이하여 위치 정정이 필요하다.

비수익 시설임을 감안하여 경주시에서 소유권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무상 인계 후 관리함이 바람직하며 소유권 무상인계가 어려운 경우 건물의 노후정도를 감안하여 용도폐기 후 철거해야한다.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공원구역내 위치해 있는 석굴암(1,2), 남산(동남산) 등 3동도 경주시에서 무상 인계 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 기림사(1, 2)화장실은 주차장과 연계하여 기림사에서 관리하고 불국사(1, 2), 서악, 화랑, 소금강 등 공원구역 외 설치된 5개동은 인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다.

화랑전시관은 사유시설로 소유자가 관리하고 불국사 전시관은 사찰 소유로써 불국사에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

공원구역 내 설치된 안내표지판, 탐방로상 교량은 경주시에서 공단으로 일괄 인계하여 공단에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 안내표지판은 종합안내도(6), 지구안내도(6), 이정표(58), 문화재해설안내판(33), 기타(27)이 있으며 탐방로상 교량은 철교량 3개소(36.5m), 목재데크(계단) 1개소가 있다.

<표 10> 공원시설물 관리·소유권 세부내용

구분	명칭	위치	규모	현 관리 주체	인수 여부	비고
진입 로	석굴로	불국사 - 석굴암	8km	경주시	×	-시도42번/공원 진입도로 -관리혼선

구분	명칭	위치	규모	현 관리 주체	인수 여부	비고
	남산 순환로	포석교 - 탐마을	12km	경주시	0	-공원진입도로 -현재탐방로 개념으로 사 용
탐방 로	남산	7개소	연장 22.7km	경주시	0	-공원계획조정(노선조정)
주차 장	석굴암	진현동 973-8	20,000m ²	경주시	0	-유상매입
	기림사	양북면, 호암리 428-1	2,400m ²	경주시	×	-사찰주차장, 사찰관리
휴게 소	토함산	진현동 산90-2(임)	99m ²	경주시	0	-주차장과 연계 소유권 (매입등)
	황용동	양북면 장항리257-10(임)	164.8m ²	개인 (이영숙)	×	-개인소유
전망 대	남산	남산동 산36-4(임)	53m ²	경주시	0	-비수익시설 -소유권 무상인수
화장 실	기림사1	양북면 호암리 산1-1	-	기림사	×	-사찰소유관리
	기림사2	양북면 호암리 산1-1	-	기림사	×	-사찰소유관리
	석굴암1	진현동 산973-8	261.87m ²	경주시	0	-석굴암주차장과 연계인 수 추진
	석굴암2	진현동 산9-1	59.85m ²	경주시	0	-소유권 무상인수 (비수익시설)
	남산1	남산동 산36-4	59.85m ²	경주시	0	-소유권 무상인수 (비수익시설)
	남산2	배동 산18-3(임)	59.85m ²	경주시	×	-노후, 이용불편, 용도폐 지철허(경주시 이행요구)
	대본	양북면 봉길리 26-3	-	경주시	×	-소유권 인계 (비수익 시설) * 기부채납등 문제점 상

구분	명칭	위치	규모	현 관리 주체	인수 여부	비고
						존
	구미산	현국면 가정리 산85-2	45m ²	토지 (천도교 재단)	×	-부지가 천도교재단 소유
	불국사1	진현동 50-2	115,5m ²	경주시	×	-공원 외
	불국사2	진현동 50-2	115,5m ²	경주시	×	-공원 외
	서악	서악동 843	36.5m ²	건축물 대장 없음	×	-공원 외
	화랑	충효동 산7-10	48m ²	건축물 대장 없음	×	-공원 외
	소금강	동천동 514-3	43.31m ²	경주시	×	-공원 외
전시 관	화랑	충효동 310	부지 170,000 m ²	김해김 씨 종친	×	-개인 소유
	불국사	진현동 123-1	1,259m ²	경주시	×	-개인 소유

VI. 결론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 보존, 위치 및 이용의 편의 등의 항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용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산악형, 해안형, 사적형으로 구분되어 지정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주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분류되어진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국립공원계획에서는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 사적형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기존의 경주국립공원계획에서도 문화 사적자원을 중심으로 한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경주 국립공원구역 안에 분포하는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 및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주국립공원 8개 지구에 대한 지구별 평가결과를 자연공원법 지정기준을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데이터화하였고 우리나라 덕유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두 곳을 경주국립공원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 덕유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과 비교하여 경주국립공원 8개 지구중 4개 지구가 지정기준이하의 평가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적형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주국립공원 8개지구중 4개 지구의 구역 조정안을 제안하였다.

경주국립공원의 경계불부합지역은 원칙적으로 경계측량을 통하여 문제

점을 해결해야 하나,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지적도근점 좌표측량을 통해 오차를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주국립공원이 경주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리 이관됨에 따른 공원시설의 인계·인수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관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으로써의 공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사적관련 전문가의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2004, pp. 759-764.
-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2004, pp. 723-731.
- 국립중앙과학관, 지리산국립공원 생태계연구, 국립중앙과학관 학술총서 34, 2001,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훼손지복구 환경조사 및 실시설계, 1994.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관리업무 자료집, 1991.
- 경주시, 경주국립공원 관리계획, 2005. pp. 99-251.
- 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남산 정밀학술조사보고서, 2004.
- 경주남산연구소, 구경하기(지도), 2007
- 경주대학교 관광진흥연구원, 경주남산 관광자원화 방안, 1999.
- 경주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생명의 숲 경주남산 자연환경 및 이용현황, 2000.
- 경주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생명의 숲 경주남산 자연환경 보존 및 관리방안, 2000.
- 경주시, 2006~2020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2006.
- 경주대학교 관광진흥연구원, 경주남산 이용객 혼잡지각 구조분석, 2000.
- 건설부, 국립공원 장기종합개발계획, 1988.
- 공성규, 문화유산해설가이드 역사와 답사, 2008.
- 달성군, 화원자연휴양림 기본계획, 2006.
- 문화관광부, 경주시, 경주 관광자원 개발연구, 2006.

- 문화재청, 문화재 관계법령집, 2006.
- 신라문화원, 경주남산지도, 2004.
- 임원현, 이상명, 이유미, 이병천, 경주국립공원의 식물상, pp. 1-3.
- 임원현, 강기호, 김두환, 경주남산의 식물 군집구조. 경주대학교 건설 환경연구소 논문집 제3호, 2000, pp
-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업무편람, 2005.
- 한국수자원공사, 공원이용 후 평가 및 이용자 중심 공원 조성계획, 2004.
- 환경부, 자연공원법, 2007, pp. 4-14.

A Study of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System of Gyeongju National Park

Lee, Sang Young

Department of Tourism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im, Won-Hyeon)

Abstract

The Korean National Parks have been designated and managed uniformly according to categories, such as natural ecosystem, natural landscape, cultural landscape, geographical preservation, and location and convenience of use. However, in essence, it seems reasonable to classify national parks into mountain type, seacoast type and historical site type. From this point of view, Gyeongju National Park is categorized into an historical-site type national park, the only one in Korea.

Unfortunately, the plans to establish national parks based on the National Parks Act, do not include plans for an historical-site type park focusing on cultural assets. The existing plans for Gyeongju National Park have not dealt with plans to establish parks for cultural historical sites, either. Therefore,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draw plans for parks by which cultural assets in

Gyeongju National Park can be effectively preserved, managed and used.

For this study, an evaluation was carried out of eight districts in Gyeongju National Park under the criteria of the National Parks Act and the results were processed into data. Also,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at of Doegyusan National Park and Odaesan National Park. The results showed that four out of eight districts in Gyeongju National Park were behind the criteria. Based on the results, this dissertation recommends that for effective management of a historical-site type national park, four out of eight districts in Gyeongju National Park have their boundaries adjusted.

The problem of the inconsistent boundaries of Gyeongju National Park should be solved, in principle, by measuring boundaries. This dissertation suggests, however, that errors be revised by measuring coordinates of a supplementary control point at a cadastral map given costs and time.

In addition, as Gyeongju National Park has been transferred from Gyeongju city to Korea National Park Service for management, this dissertation sets up the criteria for transferring and accepting the park facilities and suggests measures to manage and transfer national parks in an effective way.

The result will suggest directions to establish further plans for Gyeongju National Park, the sole historical-site type national park as well as encourage professionals in the field to participate and put their efforts into the task.